

고창 농특산물 중국시장 공략 나선다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온·오프라인 판촉 돌입 중 쇼핑몰에 24개 제품 입점...전용식품관 운영도

고창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중국시장 공략에 나선다.

고창군에 따르면 군이 운영하는 재단법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가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중국시장 진출과 판매 촉진에 돌입했다.

연구소는 베리류와 농식품 제품들을 활용해 중국 온·오프라인 시장을 동시 공략하고 있다.

연구소는 올해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 쇼핑몰'에 우수 농식품 14개사의 24개 제품을 입점시켜 판매하고 있다.

연구소는 사임당푸드, 흥삼베리, 정맥주식회사, 황토더덕영농조합법인, 임성규네고구마 등 지역 업체와 협업체 1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 중이다.

연구소는 또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 강화에도 주력한다.

이달 중 산동성에 '고창군 전용식품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타오바오에 입점한 업체 수를 늘리고 오프라인 매장도 지

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의 향토식품이 입점된다

오바오 쇼핑몰을 기반으로 중국 '웨이보' SNS 마케팅과 '왕홍' 방송 생방송을 통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연구소는 마케팅 강화를 위해 고창군 로고를 제품과 함께 기재해 지역홍보까지 병행한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의 우수한 농특산물이 중국시장에 많이 진출해 고창군민의 소득으로 이어지고 연구소와 고창군업체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고창군은 지난 5월 중국 조장시 윈다쇼핑몰에서 고창군 농특산물 판촉행사를 열었다. <고창군 제공>



익산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준공...농업인 창업 적극 활용

익산시가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준공했다. <사진> 합열읍 농업기술센터 내에 들어선 농산

물종합가공센터는 총 사업비 25억8000만원이 투입돼 건설됐다. 이 센터는 초기자금 부담과 창업절차가

대한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센터는 995㎡의 규모로 건축됐다.

1층은 전처리실, 습식가공실, 건식가공실, 반찬가공실, 포장실 등이 들어섰으며 2층은 가공실습교육장 등이 마련됐다.

또 잡류, 음료류, 증류, 분말, 말랭이류, 유지류, 볶음채류 등의 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40여종의 가공장비 등이 갖춰졌다.

센터 이용대상은 농산물 가공창업 보육 교육을 이수하고 유통전문 판매업을 등록한 농업인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및 품목제조보고 등 법적사항을 올해 마무리해 제품 생산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가공 제품들이 로컬푸드매장, 학교급식, 농협 하나마트 등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정읍시, 금연사업 '성과 있었네'

흡연자 금연계획률 상승...질병관리본부 우수사례 소개도

정읍시민의 금연계획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정읍시의 금연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시에 따르면 흡연자 중 금연할 계획이 있는 흡연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금연계획률이 지난 2016년 4.0%에서 지난해

9.3%로 상승했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금연사업에 따른 금연계획률 상승은 질병관리본부의 '지역사회 건강과 질병' 9월호 우수사례로 소개되며 검증됐다. 시는 시민의 금연계획률 향상과 금연 실

천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연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흡연자 맞춤형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의료인 금연권고율 개선, 다각적인 홍보 등을 통해 금연문화 조성에 앞장서 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해 금연계획률은 인근 지역인 김제의 1.6%와 전국평균 5.8% 보다 높은 9.3%를 보였다.

정읍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흡연자에게 금연 의지와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금연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담배 연기 없는 사업장 만들기 등을 위해 이동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보건소 건강증진과 금연상담실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박기섭 기자 전북취재본부장

군산시, 군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

정부 도움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 생계비·의료비 등 지원

군산시가 신규사업으로 '군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 선정기준에 벗어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에 기준중위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해 위기상황에 처한 세대에 단기간의 도움을 주는 지역 특화사업이다.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75%(4인기준 346만원)에서 군산형 기준중위소득 85%(4인기준 392만1000원), 일반재산은 1억1008만원에서 1억 3000만원, 금융재산은 생계비 500만원

에서 700만원과 주거비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기준을 완화했다.

지원내용은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3가지 항목이며 생계비 4인기준 90만원(2회), 주거비 3-4인기준 35만원(2회), 의료비 지원기준 100만원이내(1회)를 지원한다.

시는 경제적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위기상황에 처한 세대를 발굴해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순창군 장애인복지관 건립 예정부지(원안).

순창군, 장애인 복지관 건립 '청신호'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 확보...내년 착공 가시화

순창군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순창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장애인복지관 신축 건립을 위한 사업비 10억원(2019년도 행안부 특별교부세)을 확보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순창읍 남계리 일대에 사업비 43억원을 들여 오는 2020년 착공, 2022년 민선 7기 임기 내 개관을 목표로 진행 중인 사업이다.

그동안 순창군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3066명으로 전체 인구의 10.5%를 차지함에도 노인복지회관과 한 건물을 사용함에 따라 분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군은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도청 관계자들을 여러차례 방문, 장애인복지관 신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전북도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새롭게 지어지는 복지관에는 장애인 직업 교실을 비롯해 심리치료실, 재활실, 물리치료실, 휴게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건립 예정지인 순창읍 남계리 일대 군유지 토지매입이 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월 진입도로 대지만 확보하면 용지 매입이 완료된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

남원시,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활동... '청정지역' 유지

남원시가 인접지역의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에도 총력을 다한 예방활동으로 18일 현재 소나무 재선충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동안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까지 보존가치가 높은 마을숲, 시내권 가로수 1,500본에 대한 소나무 재선충 예방 나무주사사업을 완료한 상태다. 또 오는 2020년까지 보존가치가 높은 소나무에 대한 재선충병 예방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